

The innovator's dilemma

#0 The innovator's dilemma

#1 Sustaining Innovation vs Disruptive innovation

#2 The reason for the dilemma

#3 Samsung vs Xiaom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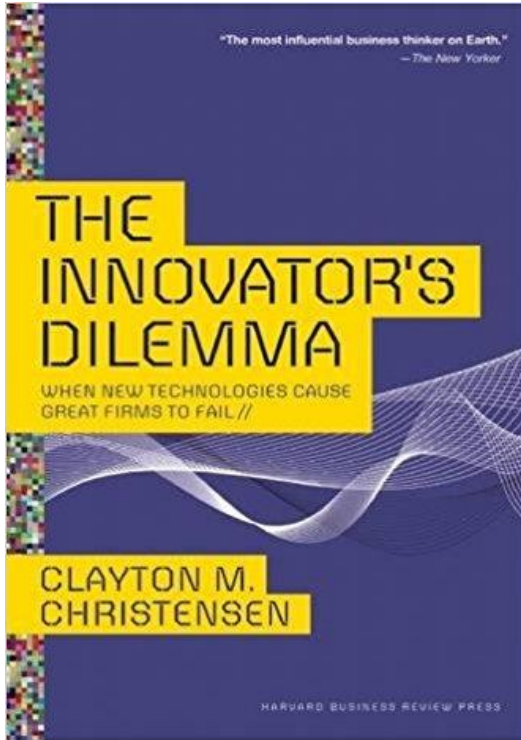
과목 : 매체미학

지도교수 : 윤준성 교수님

발표자 : 글로벌미디어학부 20142518 손세진

딜레마[Dilemma]

: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- 네이버 국어사전



- 저자 : 클레이튼 M. 크리스텐슨
- Global Business Book Award 수상
- 이코노미스트 6개 중요 저서 선정
- 베스트 비즈니스 북
-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

#1 Sustaining Innovation vs Disruptive Innov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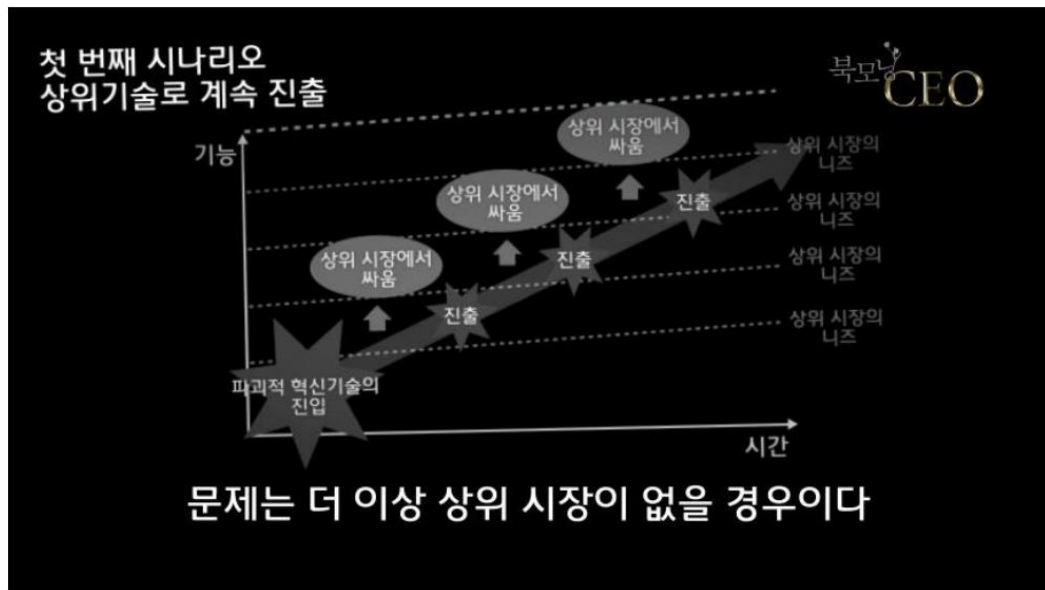
- Sustaining Innovation **존속적 혁신**

- 주류 고객의 기대 수준에 맞춘 성능 향상
- 기술 진보로 제품의 성능을 점진적으로 향상
- 특정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기술적 진보는 존속적 성격

- Disruptive Innovation **파괴적 혁신**

- 주류 시장에서 기존 제품들 보다 성능이 떨어짐
- 신시장형 파괴전략, 로엔드형 파괴전략
- 일반적으로 더 싸고, 더 단순하고, 더 작고, 편리

#1 Sustaining Innovation vs Disruptive Innovation



=> The innovator's dilemma!

#2 The reason for the dilemma

- 기술의 공급 \neq 시장의 수요
 - 더 많은 성능과 더 비싼 가격
 - 소비자의 니즈를 초과하는 혁신기술
- 파괴적 기술이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
 - 원칙 1. 기업은 자원을 얻기 위해 고객과 투자자에 의존
 - 원칙 2. 소규모 시장은 대기업의 성장욕구를 해결하지 못함
 - 원칙 3.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분석 불가능
 - 원칙 4. 조직의 능력이 조직의 무능력을 규정한다
 - 원칙 5. 기술공급은 시장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

#3 Samsung vs Xiaomi



SAMSUNG GALAXY S8



XIAOMI Mi6+

#3 Samsung vs Xiaomi



XIAOMI Mi6+

파괴적 혁신 : Xiaomi

- 제조원가 수준의 가격
- 스마트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공급
- 자체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
- 물량의 80% 온라인 판매

참고영상

-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NrC_tR8hxjQ (0:30)

Thank you
